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 沈明求
編輯人: 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 (02)2267-7857
(02)2263-7897
FAX: (02)2269-7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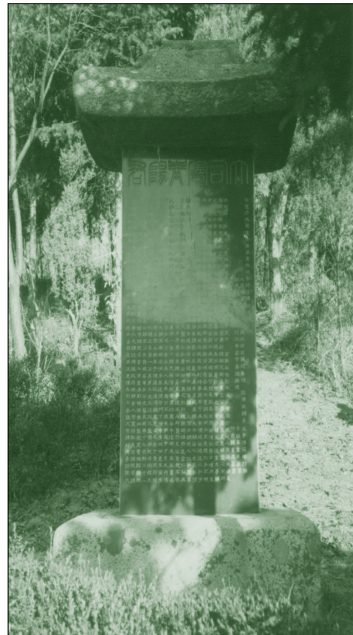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11世租大司憲 靑陽君諱義謙(의겸) 神道碑銘 并書(上)



▶ 청양군 묘소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 신도비

크게 놀라며 인흥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그렇게 배신하시오』 정인흥이 미안하게 여기며 체면상 말을 바꾸었다. 인흥이 재차 계청을 했을 때 송강이 울곡의 자(字)를 부르고 책망하며 말하였다.

『우리들이 숙헌(叔獻)⑥의 손에 죽을 줄 어찌 알았겠나』

이에 울곡이 웃으면서 사과하여 말하였다.

『나의 일을 보는 것이 더디어서 인흥에게 뒤졌으나 뉘이 나를 책망함이 또한 과하지 않은가』 乙酉(1585)년에 인흥의 무리가 공을 공격하다가 여력이 없어서 공의 친구들에게까지 이르니 일반 사류(士類)들도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서명(書名)이 풍부한 울곡과 우계 같은 兩先生에게까지 이르니 실로 원우(元祐)⑦의 간당과 같은 표적이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오직 공을 알되 공을

조선 무오(戊午 1469)년부터 당화(黨禍)가 잦았으니 다들 소인으로 인해 군자를 공략한 것이다. 선조의 대에 이르러서 선비들 중에서 스스로 저들과 우리라는 극한적 대립으로 득실을 가렸으니 장차 그 화가 국가에 미치게 되어 크게 탄식할 일이였다.

沈公의 이름은 의겸(義謙)이고 字는 방숙(方叔)인데, 처음으로 사인(舍人)으로서 영의정인 윤원형(尹元衡)의 집으로 품의(稟議)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마침 김효원(金孝元)의 침구가 그 집 사위의 방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의심스럽게 여겼는지 그 뒤 김공이 과거에 급제하고 명성이 날로 성대함에 공이 여러 번 막았고 벼슬길에 오른 뒤 金公이 여러 번 공을 초청했으나 반드시 사이를 좋게 하는데 뜻을 둔 것은 아니었다. 불행하게도 천박한 무리들이 말을 만들어서 일을 꾸미니 현저하게 분당(分黨)의 징조가 있었다. 울곡 이선생(李栗谷)께서 걱정이 되어 양쪽을 진정시키는 방도로써 지방으로 보내도록 청하여 공이 개성유수(開城留守)가 되었다. 이로부터 수년간 횡계(橫潰)①의 세력들이 날로 불어나고 달로 더해졌는데 이 때 정인흥(鄭仁弘)이 공을 가장 미워했다. 장령(掌令)의 직책으로 말을 꺼냈는데 공은 친상 증임에도 불

구하고 벼슬을 피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며 정인흥이 공을 탄핵하고자 할 때, 울곡이 대사헌(大司憲)으로써 타일러 공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으나 仁弘이 듣지 않으니 울곡이 우계(牛溪)②에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가 덕원(德遠)에게 따르면 반드시 화를 내고 떠날 것이고 시배(時輩)③들은 이것을 잡고 나를 공격할 것이니 나머지 떠나게 되면 일들이 더욱 바람직한 모양이 아닐 것이오』 덕원은 정인흥의 자(字)이고 우계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덕원이 이 같은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 괴이합니다』 그래서 울곡이 대략 계초(啓草)④를 잡아서 공에게 그만 두게 하였으나 본뜻은 공이 척신(戚臣)⑤의 몸이어서 사림(士林)의 처지를 생각한 때문이다. 울곡이 이 같은 계사(啓辭)의 내용을 인흥에게 말하고 시비를 그만두도록 당부하고 한 글자도 가감하지 않았더니 인흥이 그렇게 하자고 하고는 다음날 다시 계청을 이어서 덧붙여 있는 사류(士類)들을 갈라놓아야 한다는 등 말이 첨가되니 임금께서 하문하셨다. 『사류란 어느 사람이나』 정인흥이 정송강 철(鄭松江 澈)과 몇 사람을 열거하며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이 서로 형세를 엿보기로 체결했사옵니다』 울곡이

공격한 이는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얼마 되지 않아 공이 거상(居喪)을 이기지 못해 丁亥(1587)년 9월에 죽으니 享年 53세이고 墓는 파산 시곡리(坡山 柴谷里)에 있다.

- 註 -

1. 횡계(橫潰) : 횡포하고 어그러뜨림.
2. 우계(牛溪) : 성혼(成渾)의 호(號)임.
3. 시배(時輩) : 당시의 무리. 즉 요직에 있는 상대당인 들을 낮추어서 이른 말.
4. 계초(啓草) : 상소문의 초고.
5. 척신(戚臣) : 왕의 친인척이 되는 신하.
6. 숙헌(叔獻) : 울곡 이이(李瑀)의 자(字)임.
7. 원우(元祐) : 중국 송(宋) 나라의 연호.
8. 사가(賜暇) : 나라에서 공부를 시키기 위한 휴가.
9. 호당(湖堂) : 독서당 조정에서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가려서 글을 읽게 하던 곳.
10. 문망(文網) : 상소문 등으로 인한 사건.

奉朝賀 송시열이 지음

<다음호에 계속>

◇ 문의처 : (011) 2367-7857
※ 별도로 개인별 통지가 없아오니 유의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06년 2월 일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명구

一·二〇〇五년도 회무보고
二·二〇〇五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승인의 건

三·이인영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四·二〇〇六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五·二〇〇六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六· 기타 중무에 관한 사항

◎ 부의 안건 ◎

◇ 일시 : 2006년 4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중로구 명륜동 성균관유림회관

◇ 전화 : (011) 744-0677

◇ 회비 : 1만원

◎ 다 음 ◎

西紀二〇〇六年度第二十六回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공사간 다망하실 줄 사료 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青松沈氏大宗會 第三十六回定期總會 開催



首卷續編 收錄目錄

首卷 續編 (神道碑. 墓碣. 墓表) 目錄

本首卷續編은 2002年度에 간행된 孝辰譜의 수권속편으로 경진보 수권에 수록되지 않은 많은 顯祖의 사적과 仕宦錄, 그리고 現代 人物錄등을 아래와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 1. 顯祖事蹟
神道碑文, 墓碣銘, 行狀 等
2. 官案 (邑誌)
留守, 府尹, 牧使, 郡守, 都事, 縣令, 縣監, 贈職, 壽職, 各榜目
3. 旌閭 (邑誌)
孝子, 孝女, 烈女, 烈婦, 人物.
4. 顯祖年譜 (王朝實錄에서 발췌)
5. 現代人物錄 (各言論界年鑑參照 : 2004年度)
1) 官界
長官, 次官, 軍將星.
2) 教育界
大學校 : 總長, 學長, 教授, 副教授, 專任教授, 講師, 專任講師
初, 中, 高校 : 校長, 校監, 行政, 全國幼稚園現況
3) 各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長
歷代國會議員, 市道議會議員, 郡區議會議員, 面長 및 面議會議員
統一主體國民會議議員
4) 法曹界
(法院發行 2005年度 人事 記錄簿)
判事, 檢事, 辯護士.
5) 其他 各界 (2004年度 現況)
經營人, 醫療人, 體育界, 文化界, 言論界.

首卷 續編(神道碑. 墓碣. 墓表)
世 官職(號) 諱 事蹟
五處山所 事蹟 및 二祭壇
青松 普光山 始祖山所 事蹟
咸悅 南堂山 二世祖 閤門祗侯公
諱 淵 山所事蹟
安城 三世祖 青華府院君 諱 龍
山所事蹟
漣川 四世祖 青城伯 諱 德符
山所事蹟
淸州 粉坪洞 四世祖妣 淸州宋氏
山所事蹟
二世祖 奉翊大夫公 諱 晟 祭壇
四世祖 岳隱公 諱 元符 祭壇
顯祖事蹟
4 世祖 岳隱公 元符 景義齋記
4 世祖 正郎公 之浦 墓碣文

5 知成主事公派 世德碑文(井邑宗中)
世系碑
5 安孝公配位三韓國大夫人 順興安氏行狀
6 石村公 孝尙 行狀
6 贈參判公 孝崙 享壇碑銘
6 判官公 世叔 祭壇碑銘
7 承旨公 宗夏 墓表
7 兵曹參議公 潁 行狀
7 副司果公 太山 遺事
8 通仕郎 瑾 祀壇陰記
8 忠衛尉公 珪 墓表
8 通德郎公 璣 墓表
8 海州牧使公 安智 제단비명
8 贈左贊成 順路 墓碣
8 進士公 遜 墓碣銘
9 司憲府監察 希武 墓碣文
9 贈嘉善大夫 濱 族葬碑文
9 都正公 淳 墓碣
9 修撰公 達源 神道碑後記文
誌墓 貞夫人
9 進士公 幹 墓碣
9 成均進士 興源 祀壇碑
9 副護軍 弼倫 遺事
10 贈左承旨公 鱣 墓表
10 安岳郡守公 光門 墓碣
10 金海府使公 光憲 行蹟
10 忠壯公 岱 神道碑文
10 青坡府院君 銓 墓碣銘, 神道碑銘
10 贈領議政 鍵 墓表文
10 主簿公 鶴齡 墓表
11 副護軍公 溱 墓碣文
11 僉知中樞府事公 安普 墓碣文
11 贈大司憲 鎬 墓誌
11 果川公 錦 墓碣銘
11 啓功郎公 錡 墓碣
11 訓練院判官 鐸 事蹟
11 吏曹參判 大亨 墓碣
11 司諫公 大孚 墓碣銘
11 驪州牧使公 友正 墓誌銘
11 贈吏曹參判 友俊 墓碣銘
11 正言公 苓 詠竹八絕帖後
11 贈兵曹參議公 宗明 行狀
11 贈左承旨公 仁謙 墓碣銘
11 正郎公 智謙 墓碣銘
11 贈吏曹參判 孝謙 墓碣銘
11 水運判官公 悌謙 行蹟
11 贈吏曹參判 昌壽 墓碣銘
11 守門將公 淸 墓碣銘
12 价川郡守公 宗敏 墓誌銘
12 僉知中樞府使 宗直 墓誌銘

12 嘉善大夫 彥謙 墓誌銘
12 杜岩公 敏謙 墓表
12 承政院都承旨 演 墓碣銘
12 嘉善大夫 澤 墓碣銘
12 贈領議政 諫 墓碑銘
12 通德郎 譚 墓表文
12 戶曹參議 誥 墓碣銘
12 礪山郡郡守公仁補 墓碣銘
12 處士公 訓 墓表
12 贈領議政 惓 墓碑銘
12 教官公 憬 墓碣銘
12 贈戶曹參判 幅 墓碣銘
12 贈吏曹參議 楊 墓碣銘
12 金浦 郡守公 愼 墓碣
12 贈吏曹判書 昶 墓碣
12 摠管公 旭 墓碣
12 通政大夫公 噉 墓表
12 訓導公 應濂 墓碣銘
13 旌善郡守公 倓 墓表
13 永柔縣令 民覺 墓碣銘
13 贈大司憲應教 普龜 墓碣銘
13 副正公 光濂 亂禍感慕碑
13 贈領議政 光沔 墓表文
13 青安君承旨公 光洙 墓碣銘
13 副提學公 世鼎 行狀
13 贈吏曹參判 光世 墓誌銘
13 贈參判公 挺世 墓誌銘
13 貞敏公 長世 墓表
13 贈司僕侍正公安世 墓誌銘
13 贈戶曹參判 儒訓 墓誌銘
13 贈崇錄大夫 儒行 墓碣
13 嘉善大夫 儒績 墓碣
13 僉知中樞府事公 鑣 墓碣銘
13 省峴察訪公 鑑 墓碣銘
13 省峴察訪公 鉉 墓碣銘
13 忠義衛公 欽 墓碣銘
14 陋菴公 之澤 墓碣銘
14 贈吏曹參議 之湜 墓表
14 左副承旨公 之漢 墓碣銘
14 贈吏曹參判公 之治 墓碣
14 參奉公 之灝 墓碣銘
14 承義郎公 之潤 墓表
14 副提學公 攸 墓碑銘
14 判中樞府事 檀 墓誌銘
14 觀察使 檣 墓碑文
14 吏曹參判公 檣 行狀
14 廣州府尹公 櫛 墓表
14 禮曹參議 權 墓碣銘
14 贈吏曹判書 槐 神道碑銘

14 禮曹參判公 杵 墓碣
14 刑曹判書 榛 神道碑銘
14 判中樞府事 梓 神道碑銘
14 僉知中樞府事公 世文 墓碣銘
15 豐德副護府使 益善 墓表
15 青平都尉 益顯 墓誌銘
15 贈吏曹參判公 益成 墓碣銘
15 吏曹參議 漢柱 墓碣銘
15 贈吏曹判書公 若溟 墓誌銘
15 通德郎 壽漸 墓表
15 嘉善大夫 最良 墓碣銘
15 通政大夫 仲良 記蹟
15 通政大夫 季良 墓碣銘
15 鐵山府使公 夢良 墓碑文
16 正言公 尙鼎 行狀
16 朔寧公 廷耆 墓表
16 同知中樞府使 廷最 墓誌
16 普倚亭公 溆 不倚亭侍建記
16 工曹正郎 鳳儀 墓碣銘
16 陵州牧使 鳳輝 墓碣銘
16 贈領議政 涑 墓表
16 贈領議政 濡 墓碣銘
16 靜坐窩先生 潮 墓碣銘
16 嘉善大夫 瀆 墓碣
17 贈吏曹參議 師民 墓誌
17 吏曹參判公 聖希 墓碣銘
17 淸獻公 宅賢 墓碣銘
17 贈通政大夫 礪賢 豆丘
17 成均進士 玉賢 豆丘
18 贈吏曹參判 毅鎮 墓碣
18 左贊成公 公獻 孝子傳
18 贈通訓大夫 鎰 豆丘
19 이조참판 敦永 사적
19 贈領議政 念祖 正御製內閣受教
19 贈左贊成 豐之 墓表
20 坐勝堂記 象奎 以威亭記
20 惠山公 能武 墓誌
21 宜珮 世葬遷神道碑文
22 義兵將 守澤 殉節碑文
22 齋陵參奉 晶澤 行狀
22 石田先生 繼澤 墓表
22 竹圃公 禮澤 墓表
22 參奉公 榮澤 墓表
野話
5 安孝公 配位 安夫人 移葬記聞
6 恭肅公 滄 難을 피한 事實
8 舍人公 順門 遇禍事實 翁井里 占山 記文 書簡
24 二十四世祖 吉求 書簡

顯祖年譜 目錄

世 諱 號·諡號 官職爵位 壽
3 龍 青華府院君 典理正郎
4 德符 青城伯 좌정승 74세
5 仁鳳 좌군도총제
5 澄 인수부윤
5 溫 安孝 영의정 44세
5 淙 청원군
5 沚 동지총제공
6 灝 호연 평산부사공
6 涓 愛菴 감찰
6 石雋 양혜공
6 濬 심부 영증추공
6 滄 恭肅 영의정 76세
6 決 靖夷 판돈령부사 52세
7 璿 忘世亭 관찰사
7 涓 동지중추공
7 潁 참의공 58세
7 瀚 夷敬 청천군 47세

7 浚 관관공 31세
7 貞源 진리좌수사
8 安仁 병마절도사 54세
8 安義 청성위 40세
8 順路 청안군 48세
8 順徑 상대장 81세
8 順門 사인 40세
8 順道 돈녕 76세
9 濱 안성군수
9 連源 忠惠 영의정 68세
9 達源 좌통례 42세
9 逢源 曉窓 동지돈령부사 78세
9 通源 晚翠堂 좌의정 74세
9 義欽 흥문관전한
10 光彥 胡安 좌참찬 79세
10 岱 忠壯 관찰사 47세
10 鎰 천정공 61세
10 銓 관찰사 70세
10 鍵 군수 59세
10 鋼 翼孝 靑陵府院君 54세
10 鐺 漢城府右尹
11 錦 과첨현감 35세

11 大孚 泛齋 사간 72세
11 友正 賓竹 부사 54세
11 友勝 晚沙 관찰사 52세
11 友端 士良 縣監 71세
11 義謙 巽庵 청양군 53세
11 忠謙 忠翼 병조판서 50세
11 喜壽 文貞 좌의정 75세
11 源河 장령공 54세
12 宗道 관결사 87세
12 宗忱 숙천부사 62세
12 演 圭峯 관찰사 61세
12 澤 翠竹 감사 66세
12 諤 도정 68세
12 諤 南崖 예조판서 76세
12 諮 鶴溪 청송군 94세
12 悅 忠靖 영의정 78세
12 忻 대교 35세
13 偈 증영의정 61세
13 器遠 좌의정 58세
13 東龜 晴峯 응교 67세
13 光洙 魯溪 공조참의 65세
13 命世 忠肅 공조참관 46세

13 熙世 교리 45세
13 儒行 醉醒堂 보덕 55세
14 之漢 滄洲 참의 62세
14 之溟 蠶岩 개성유수 87세
14 之淸 寒竹堂 부사직 63세
14 之源 晚沙 영의정 70세
14 攸 梧灘 부제학 69세
14 檀 追尤堂 공조판서 86세
14 檣 觀찰사 67세
14 檀 승지 72세
14 櫛 광주부윤 62세
14 權 관찰사 55세
14 槐 청평군 61세
14 杵 예조판서 63세
14 梓 養拙齋 좌참찬 70세
15 極 좌승지 61세
15 梧 병사공 73세
15 益顯 竹塢 청평위 43세
15 益昌 부사 74세
15 益成 태인현감 42세
15 壽亮 이조판서 49세
15 最良 관결사 70세

Table with 10 columns listing names, titles, and ages. Includes names like 仲良, 季良, 廷最, etc.

靑松沈氏世稿選目錄 (顯祖183人 詩集)

世號(字) 諱 詩題 頁수 (卷之1)

Table listing 183 entries with columns for name, title, and page number. Includes entries like 閣門祿侯公淵, 青城伯德符, etc.

Table listing 183 entries with columns for name, title, and page number. Includes entries like 司正公世雄, 監司公世鼎, etc.

Table listing 183 entries with columns for name, title, and page number. Includes entries like 進士公濟權, 庸窩公淳希, etc.

Table listing 183 entries with columns for name, title, and page number. Includes entries like 常庵公能斌, 斗室公象奎, etc.

別錄 世稿選(邑誌에서 拔萃)

Table listing 436 entries with columns for name, title, and page number. Includes entries like 元符, 孝尙, 大山, etc.

논 단

■ 혈구지도(絜矩之道)와 충서(忠恕) ■



대종회 이사
沈星求

혈구지도(絜矩之道)는 자로 물건을 재듯이 내 마음을 자(尺度)로 삼아 남의 마음도 재고 내 처지를 미루어 생각하여 남의 처지도 알아주는 방법을 말한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상관성을 무엇으로 표현을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혈(絜)은 '재다' '헤아린다' 구(矩)는 '자(尺度)'라는 뜻이므로, 혈구는 '자로 재다'는 뜻이 된다. 그자(尺度)는 곧 나(我)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도덕적 양심을 말하고 있다.

사람은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일 수 없으며 나(我)를 중심으로 하여 주위에는 상하, 전후, 좌우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을 미루어 진심으로 올바른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의 주위에 질서가 잘 유지된다는 것이다.

주자는 혈구지도는 '인을 넓히는 방법인가'라는 물음에 '인을 구하는工夫다'(求人工夫)라고 답하였다. 또 말하기를 '구(矩)라'는 것은 마음이니 나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는 곧 타인이 하고자 하는 바이니 내가 孝, 弟, 慈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타인으로 하여금 모두 나의 孝, 弟, 慈와 같게 만든다. 고 하였다.

『大學』에서는 혈구지도를, 뒷사람에게서 싫은 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며, 아랫사람에게서 싫은 것을 가지고 뒷사람을 섬기지 말며, 앞사람에게서 싫은 것을 가지고 뒷사람에게 먼저하지 말며, 뒷사람에게서 싫은 것을 가지고 앞사람을 따르지 말며,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서 싫은 것을 가지고 왼쪽 사람과 사귀지 말며, 왼쪽 사람에게서 싫은 것을 가지고 오른쪽 사람과 사귀지 말 것이니 이것을 혈구지도(척도로써 재는 방법)라고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이는 내 마음을 살펴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남과 같이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천하를 태평하게 만드는 평천하(平天下)의 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천하란 天下란 변방(邊方)을 포함하여 지상세계의 안녕과 질서의 완성을 뜻한 의미라고 한다. 이것이 유학 정신의 면이며 도덕의 완성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大學』에서의 평천하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기반을 두고 말할 때 만 가능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大學』에서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재앙이 반드시 몸에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보편성 상실을 경

계하는 말이다. 주자는 이것을 '不仁함이 매우 심하다' 라고 한다. 이와 반면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는 것 이것을 일러 백성의 부모다. 라고 말한다.

주체의 좋아하고 싫어함이 타인과 일치할 때 부모 자식과 동일한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大學』의 혈구지도(絜矩之道)의 내용이다. 유학에서는 혈구지도의 방법을 또한 충서(忠恕)로 설명하기도 한다. 주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 하고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침을 서(恕)라 한다. 고 하였다. 또한 자기의 마음으로써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일찍이 같지 않음이 없으니 道가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라고 하였다. 공자는 중궁(仲弓)이 仁에 대하여 물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며,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으며 집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어야 한다. 제가 비록 불민하나 이 말씀 받들겠습니다. 고 하였고 공자는 이것은 서(恕)일 것이다 말씀하셨다. 공자의 다음 말에서 다시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대저 仁者는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을 세우며 자신이 통달하고 싶을 때 남도 통달하게 한다. 『논어』 『옹야』 가까운 운에서 취하여 알 수 있다면 仁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孔子는 나는 일흔 살(七十)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 만은 法도에 넘지 않았다.

이 문장은 공자가 스스로의 일생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학문의 심화된 과정을 슬회한 것이다. 中和로서의 自然秩序

中和란 서로 관계된 대상들이 서로 평형(平衡)을 이루어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인간의 가치영역에도 있을 수 있으며, 자연계의 사실 영역에서도 있는 상태이다. 中庸『中庸』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中이라 하고, 또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나타나기 전의 상태를 中이라고 한다. 또 喜怒哀樂의 감정이 나타나 모두 알맞게 된 상태를 和라고 한다.

이러한 中의 관점은『論語』에서 다양하게 표출된다. 자공이 문기를 자장과 자하는 누가 낫습니까? 공자 말씀하기를 자장(師)은 지나치고 자하(商)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師(자장)가 낫습니까? 공자 말씀이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는 것(모자람)과 같다.

질(質)이 문(文)을 이기면 촌스럽고 문이 질을 이기면 호화스럽지만 하니 문과 질이 어우러진 후에야 군자가 된다. 라고 하여 여기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나은 것 같으나 그 中道를 잃음은 똑같은 것이다.

내적인 바탕과 외적인 형식의 조화를 이상으로 보는 공자의 말속에 이미 中의 관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沈星求 : 成均館 典學 典禮研究委員 과주시 문화원 부원장
忠孝禮 편집위원.

<다음호에 계속>

沈영감 심민섭



송금안내

찬조금 또는 홍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홍보발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체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알

림

青松沈氏 安孝公宗會

端午節祀奉行 및 定期總會 開催公告

西紀二〇〇六年度 安孝公 端午節祀奉行 및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저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日時 : 서기 二〇〇六年 五月 三十一日 (수요일)
十時 端午節祀奉行
- 場 所 : 水原市 靈通區 二儀洞 四〇一 번지 安孝公墓前齋室

附議案件

- ◎ 二〇〇五年度 會務報告
- ◎ 二〇〇五年度 決算報告 審議 承認의件
- ◎ 二〇〇六年度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案 審議 承認의件
- ◎ 宗土處分 取得 訴訟遂行 議決權 委任案 承認의件
- ◎ 任員改選의件
- ◎ 其他 宗務에 關한 事項

西紀二〇〇六年 三月 日

青松沈氏 安孝公宗會
會長 沈斗燮

◇ 문의처 : (031) 252-1806

※ 個別通知를 省略하오니 인근 門中과 연락하시어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체로 오시는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세미티(Yosemite) 국립공원을 찾아서 紀行文 ①



대중회 이사
沈 晟 求

물, 돌, 산, 나무라고 하면 그저 싱거운 맛이다. 하지만 이것이 한데 어울려진 조화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감흥은 작은 가슴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언어, 색채, 운율, 그 어느 것으로도 표현 할 수 없는 위력 앞에서는 아예 동화되는 것이 현명한 지혜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누비면서 끝없는 바다를 건너고 지루한 버스까지 타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몇 시간만에 뒤로하자니 아쉽다기보다도 터진 풍선만큼이나 허전하다. 다시 주위를 둘러본다. 주차장에 가득한 차들은 완구점에 진열된 장난감이다. 60여m나 되는 장송들이 우거진 숲 속, 그 숲 속으로 펼쳐지는 草地에도 무심코 떨군 휴지 쪽도 발견되지 않는다. 뿐이라 가능하다면 이 맑은 공기를 담아가고 싶다. 우거진 나무숲이 하도 흰칠하여 사진을 찍어본다. 하늘에 닿을 듯이 치솟은 이 거목 밑에서 5척 단신의 사진이 무슨 의미를 갖을는지.

하프돔이다. 둥근 돔을 잘 드는 칼로 내려쳐 자른 듯한 암벽, 기슭에서 정상까지는 1443m 이 엄청난 암벽은 2만년전에 빙하가 만들어 낸 것이라니 창조신

이 그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나 할까. 그것만도 아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계에서 단일 바위로는 제일 크다는 바위 엘·캐피탄 1100m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굴지의 등반가들이 도중 노대(露臺)에서 잠까지 자면서 정상을 바라보고 정열을 쏟아 붓는다는 바위산에 압도되는 미묘한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 이제는 오후도 중반으로 접어든 시간이다. 어디선가 구름이 갈아 앉더니 비가 내린다. 서부 활곡 지대를 지난다. 풀 한 포기 없는 벌거벗은 산이다. 해발 1800m에 1300m나 되는 와우터널을 지나고, 5월에 난 불이 11월까지 계속 타는 엘로스톤 국립공원, 불에 탄 나무들이 침묵 속에서도 노한 듯하다. 비가 개인다. 사양의 햇빛이 비단만큼이나 곱다. 1년에 100만개의 씨앗을 맺어도 불이 나지 않으면 발아할 수 없다는 세크라 나무. 불이 나면 그 열매의 씨앗이 벌어져서 발아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역시 숲 속 길이다. 주변의 나무를 따라 크지 못한 나무들이 선채로 말라서 죽고 쓰러져 마구 엉키었다. 아! 나도 모르게 감탄한 것은 흐르듯 스쳐 가는 차창으로 숲 속에서 아직 어려 보이는 사슴 한 마리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생 사슴을 잠깐이나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 것은 처음이다. 턱밑에서 가슴으로 배까지는 하얗고 등은 주황색인데 어찌 그렇게 정갈해 보이는지 아마도 어미 걸을 떠난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어린 티도 채 벗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차는 계곡으로 내려선다. 이곳은 4주전에 불이 났

었다고 한다. 나무들은 생사가 반반이다. 국립공원의 경비원은 대부분 동식물 학자들로서 사법권도 있다는 안내자의 말이다. 구름도 걷히기 시작한다. 멀리 보이는 산에 고사목이 외롭도록 쓸쓸해 보인다. 산기슭 별장지대. LA사태이후 한국인도 상당수가 이곳으로 이주했다는 어거스트 마을이다.

후레즈노 농산물 집산지. 후레즈노 농대를 좌측으로 차는 미련없이 달린다. 방화로 부모를 살상한 P군의 이야기도 나왔다. 그가 이 농대로 유학을 왔는데 라스베이커스로 드나들면서 놀음을 하다가 마피아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곳 사람들의 시각은 달랐다. 단적으로 왜 유학을 보냈느냐는 것이 결론이다. 자연스럽지 못한 언어와 젊은 나이의 고독이 P군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때는 군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K씨도 라스베이커스에서 거액의 도박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다시 목장지대를 지난다. 좌우가 지평선이다. 그러나 목초는 누렇게 말라있다. 우기가 아니라서 이란다. 처음으로 쉬고 있는 건 화물열차의 행열을 본다. 이곳에서 미국 농산물의 20%가 수출되는 곳이라는 전언이다.

호텔에서 짐을 풀었다. 호텔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다만 방충용과 울타리 겸용으로 즐지어 심은 유도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끝>

- 大宗會 理事 沈 晟 求 -

대동세보 수권속편(의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약 1,200P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약 600P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약 400P	20,000원	()권
4. 제향홀기(휴대용)	-약 30P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약 140P	3,000원	()권
6. 뱃 지		1,000원	()개

▶ 1, 2, 3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이 름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지점

* 대중회 계좌번호 : 농협(을지로4가) 084-01-179314 심 명 구

❖ 기재요령

1. 파명은 봉익공파, 악은공, 도총제공, 판사공, 지성주사공, 인수부윤공, 안효공, 동지총제공으로 구분
2.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3.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명을 기재하고, 송금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
4. 송금한 은행과 지점명을 기재

❖ 공지사항

1. 수권속편 신청금은 대동세보 관리통장 [농협 084-01-179314 심명구]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수권속편 대금을 입금하신 분은 반드시 대중회에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신청서를 접수중이며, 3월중에 인쇄에 들어갈 예정이오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산경회관) 청송심씨대중회
 우편번호 100-310
 전화 : 02)2267-7857, 2263-7897 FAX : 02)2269-7755

◆ 春季時享日表 ◆ 2006년

世	휘(諱)	양력	陰曆	曜日	所在地
始祖	文林郞公(휘:洪孚)	4월 6일	寒食	木	靑松邑 덕리 보광산
	중대 山 所	4월 6일	寒食	木	靑松邑 부곡리 중대산
二	閣門郞侯公(휘:淵)	4월 8일	3월11일	土	咸悅邑 남당리 남당산
三	靑華府院君(휘:龍)	4월 10일	3월13일	月	安城市 당왕동 산 19
三	配位 金氏	4월 10일	3월13일	月	安城市 도기동 산 64
四	靑城伯(휘:德符)	4월 12일	3월15일	水	漣川 미산면 아미리 110
四	配位 淸州宋氏	4월 14일	3월17일	金	淸州市 흥덕구 集淸동산8
四	岳隱公(휘:元符)	4월 22일	3월25일	土	靑松 파천면 덕천 경의재
五	安孝公(諱:溫)	4월 6일	寒食	木	水原영통구 이의동 산의실
五	配位(順興安氏)	4월 11일	3월14일	火	安城市금광면 오흥리 능말
六	良惠公(휘:石衡)	4월 17일	3월20일	月	龍仁市 포곡면 동막동
七	忘世亭公(휘:璿)	4월 20일	3월23일	木	南陽주시 진접읍 오남리
王后	昭憲王后	4월 28일	4월 1일	金	驪州郡 능서면 왕대리
王后	仁順王后	4월 23일	3월26일	日	노원 공능동(태릉內 康陵)
王后	端懿王后	3월 26일	2월 27일	日	구리시 (동구릉內 惠陵)
	世宗大王	4월 8일	3월 11일	土	驪州 능서면 왕대리(英陵)
	淑容沈氏	4월 16일	3월 19일	日	은평구 진관동
	宗廟大祭	5월 7일	4월 10일	日	서울 종로구 종묘

●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 ●
 유사 원택 011-9355-3608
 호섭 010-5444-2909

강좌

■ 심갑보(심윤 LMS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

“시간은 바로 돈이다”



부회장 심갑보

지난해 연말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박정인 현대모비스 전 회장(현 고문)으로부터 ‘IT활용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이란 주제의 강의를 들은 바 있다. 이 강의내용 중에서 필자의 관심을 집중시킨 부분은

IT를 통한 스피드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화상(畫像) 회의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이었다.

박정인 회장은 연단 위에 놓인 노트북(위에 PC 카메라 설치)을 이용하여 현대모비스의 국내 각 사업장과 해외 몇 개의 사업장을 연결하여 실제 회의하는 장면을 강의장에 설치된 영상매체와 연결하여 시현해 보여주었다.

화상회의 시스템이란 2개 이상의 지역 간에 PC 등의 장치화면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과 음성을 실시간(Real Time)으로 주고받으며 회의를 할 수 있는 종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를 당회사에 도입을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이 강의를 듣고 전국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 도입방법

을 검토해 보라고 담당임원에게 지시하였다. 10여일 뒤 화상회의 시스템을 판매하는 다수의 업체로부터 설치비와 유지비에 관한 견적을 받아보고 바로 일부 영업장과 인터넷을 통해 시현을 해 보았으며, 당사에 적합한 가격과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12월말에 시험가동해보기로 했다.

당사는 전국에 12개 영업장이 있고 대구에 본사와 공장(3곳)을 가지고 있으며, 3개월에 한번씩 대구본사에서 실시하는 경영전략 회의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영업본부에서는 매월 영업회의를 실시한다. 그리고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인지역에 매주 금요일마다 간부회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책임자들(인천·수원·천안)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서울까지 옴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많은 상태였다. 우선영업 본부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경인지역 간부회의부터 화상회의를 해 보기로 결정하고 2005년 12월 30일(금)에 참여자가 각자의 책상 PC(노트북) 앞에 앉아 첫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화질이 다소 떨어지고, 하면 이동시 화상과 소리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간부들의 미숙한 기기 사용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 제반문제점을 보완하여 1월 주간회의부터는 개선된 시스템으로 화상회의를 실시하면서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팀장도 참여하게 했다.

화상회의의 첫째 효과는 각자의 사무실 책상 앞에서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출장비 혹은 이동시의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와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화상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경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IT기술의 발달로 수천만원대의 비용(화상회의 솔루션·PC카메라·PC용 헤드셋)이면 자기책상 앞의 PC나 노트북에 장착하여 기존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식정보화시대인 오늘날엔 기업이 크고 작으나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빠르고 느리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시대이며 시간이 바로 돈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당사는 몇 개월 간 경인지역에서 실시를 해본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영업장으로 확대하고 임원회의나 공장 과 영업장간에도 적용해 볼 계획이다. 또 고객만족경영차원에서 주요거래처와 주요 대리점에까지 화상회의를 확대한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영업본부장과 각 영업소장의 차량에서도 무선통신과 노트북을 이용하여 화상대화를 하게 된다면 전보교환과 업무협조도 수시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IT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정부부터 화상회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기업들도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선진국으로의 길은 보다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갑보 LMS 대표이사
(끝)

CEO 파리목숨 시대...장수 비결

1981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심갑보 삼익 LMS대표이사 부회장도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전문경영자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400여 회의 세미나에 참석했고, 강연 자료만 500개 가까이 확보했을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학구열을 겸비했다.

그는 “알찬 세미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경영의 방향을 정하는데 요긴하며, 기업경영자에게엔 보약과 같다”고 말한다. 삼익LMS가 1970년대 영세 공구업체에서 첨단 자동화 부품 업체로 변신한 것은 세미나의 영향이 컸다는 평이다.

시사경제 주간지/ 이코노믹 리뷰

독립운동가 沈誠之 ⑩

이리하여 이천, 의성, 청송 3의진의?의성연합의진?이 성립되어 문거(文居) 역에서 1박하였다. 이들 3의진은 합세하기는 하였으나 조직의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감은리 전효는 1896년 5월 14일 의성 연합의진이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에서 관군을 상대로 벌인 전효이다. 의성 연합의진에서는 관군 170여명이 대구방면에서 청송 화목으로 공격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구연영(具然英)은 2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안덕 후방에 잠복하고, 신용희(申龍熙)는 2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안덕 뒤 상봉에 잠복하고, 김경성(金敬誠)은 2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황산 주봉에 각각 매복하였다. 그리고 조성학(趙性學)은 2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황현에 잠복하고, 김하락(金河洛)은 높은 지대에 올라가 총지휘를 하였다.

이때 김상중(金象鍾)의 의성의진은 앞선 전효의 피로 때문에 관망하며 전효에 참여치 않았고, 청송의진은 안덕 속곡(束谷)으로 물러나 있었다.

이날 정오에 관군은 의병들이 매복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안덕을 향해 성황현까지 행군해 왔다. 이때 의병들이 천보총(千步銃)으로 일제히 사격을 가하자 앞서 들어오던 관군은 곧 흩어져 후퇴하였다. 이어 사방에 매복해 있던 의병들이 일제히 추격하여 관군 10여명을 사살하였다. 관군은 크게 무너져 앞산을 향해 도망쳤고, 총을 잘 쏘는 의병 10여명이 다시 관군 수십명을 쏘아 죽이니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다. 얼마 후 달아났던 관군이 재차 의진을 공격했으나 김하락은 포를 쏘아 추격하였다. 이때 청송의진의 중군 김대락이 포군 2대를 이끌고 앞산으로부터 달려와 호응하였다.

당시 청송의진은 이천과 의성 양진이 이미 접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청송의진의 대장 沈誠之는

근곡(斤谷)에 머물고 중군 김대락, 진무 정진도(鄭鎭燾), 소모 심능장(沈能璋), 참모 오세로(吳世魯), 서기 윤도혁(尹道赫), 외방장 안병룡(安秉龍), 군사 이경식(李景植), 집사 윤경승(尹景昇)은 포정 60여명을 거느리고 명당동(明堂洞) 연안에 도착하여 감은리 뒷산으로 올라 합류하였다.

이천, 청송, 의성, 3의병진은 계속관군을 추격하여 적병 10여명을 죽였다. 이때 날이 어두워지므로 마침내 군대를 산 아래로 퇴각시켜 옥현(玉峴)에 유진하였다. 산 위에 관군들이 감은리에 방화를 하니 연기와 불길기 하늘에 닿았고 포성은 땅을 진동하여 그 참상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리하여 의성연합의진은 회군하여 이천의진 2대와 청송의진이 본진을 파수하고 모든 의진은 문거(文居)로 물러나 유숙하였다. 관군은 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의성, 신령 등지로 퇴각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青松沈氏 大田忠南地域宗會 任員名單
- 顧問 問... 원중 載泳 일섭
 - 指導委員 大平
 - 會長 玄根
 - 副會長 宜喆 昌曄 규찬 정보 기복 揆澤
 - 監事 雄澤 聖輔
 - 總務理事 揆善
 - 理事 재철 중섭 상우 재선 화섭
 - 홍택 의수 덕보 載成 星輔
 - 相虎 泓植 承澤 仲根 재영
 - 甲澤 東燮 文택 재창 載重
 - 載雪 載弼 載律 揆益 翁배
 - 상하 재운 명식 재훈 상홍
 - 규철 준홍 중훈 영보 윤택
 - 회돈

- 青松沈氏 寧越公派 贈都事公派宗會
- 二〇〇六年三月任員改選
- 顧問 宜約 (現全北宗會會長)
 - 會長 호택 상문
 - 副會長 完택
 - 總務 의경
 - 財務 의열 상무
 - 監事 의장 문택 응택 은택 상규
 - 理事 상만 기섭

- 青松沈氏 光州松岩宗會
- 二〇〇六年度 任員改選
- 會長 在均
 - 副會長 基燮 鶴燮
 - 總務 在萬
 - 監事 在永 潤燮
 - 理事 源善 在德 在力 石煥 在儒
 - 在憂 金燮 容兌 夢燮

宗 事 消 息

五世祖 安孝公 忌辰祭 奉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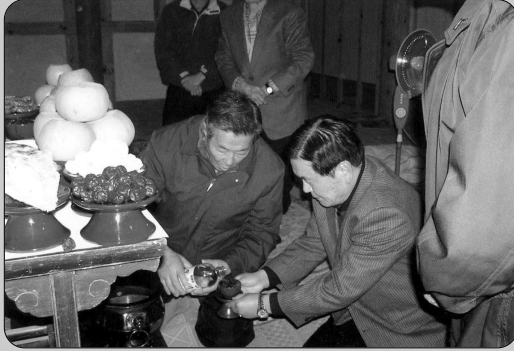
2006년 1월 24일(음: 12월 25일)



初獻 彦植 (수원)
亞獻 鳳鎭 (수원)
終獻 相雄 (수원)
執禮 相稷 (안효공중회 총무)
大祝 萬鎭 (수원)
執事 應植 彦村 (수원)

六世祖 恭肅公 忌辰祭 奉行

2006년 2월 9일(음: 1월 12일)



初獻 海變 (영태리)
亞獻 洪變 (서울 봉천동)
終獻 載澈 (서울 제기동)
大祝 養變 (영태리)
執事 相彬 仁變(영태리)



▶ 안성 三世祖 淸化부원군 묘소 정화

五世祖 安孝公 正月節祀 奉行

2006년 1월 29일(음: 설날)



初獻 在安 (인천)
亞獻 相德 (수원)
終獻 仁輔 (대중회)
大祝 鳳鎭 (수원)
執禮 相稷 (안효공총무)
執事 應鎭 彦村 載澈

11世祖 忠翼公 配位 忌辰祭 奉行

2006년 2월 18일(음: 1월 21일)



初獻 良變(양평)
亞獻 洪變(서울)
終獻 佑變(양평)
大祝 昌變(양평)
執事 相稷(안효공중회 총무)
執禮 成變(양수리), 載澈(서울)



▶ 六世祖 恭肅公 齋室

祝

沈成輔

함안 출생, 부경대 교수, 공학박사
부산 시조시인협회 회원
계간「시조문학」겨울호 등단
시집 「마음의 강물」,
「시의 나라」가을호에 詩,
「풀국 새소리」外16편 발표

청송(靑松)

시조 시인 沈成輔 작

소현왕후 후덕효애(厚德孝愛)
수양(首陽)도 감복하여

난세(亂世)에 묻힌 피를
덕천강에 씻었던가

오백년 사직을 볼든
찬경루의 솔빛이여.

고향의 봄



심의표 대중회이사

흔흔한 남녘 바람
겨울의 잔설
몰아내고
봄은 불러 손짓한다.
곱게 자란 보리 밭
푸른 물결 일렁이고
언덕 아래 푸성귀들
고개들어 기지개 켜다.
뒷동산 두견화
피었다 지고

복숭아꽃 살구꽃
시샘을 해도
뽕안 짙레꽃
향기 풀어 온대지 적신다.
멧새들은 강남제비 왔다
고
소근 소근 하ppure.
고성산 아그배 나무
언제쯤 꽃 피우려느냐.



“첫 여성 세관장 탄생”



세관장 심갑영

의정부 세관장 심갑영씨

관세청 최초로 여성 세관장이 탄생했다. 관세청은 1일 “본청 마약조사와 심갑영(46 사진) 사무관을 우리나라 관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세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 세관장을 맡게되는 심 세관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여고, 성균관대 영문과와 무역대학원을 거쳐 1977년 9급으로 관세청에 입문했다. 지금까지 본청의 관세조사와 평가과, 서울세관 심사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관세청은 4200여 명의 직원 중 여직원이 23%인 920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전국 45개 세관장 등 기관장에 여직원이 임명된 적은 없다.

관세청은 “심 세관장은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국제협력 분야와 관세가격 평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과 관련된 민원이나 밀수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原州 橫城地區 靑松沈氏 宗會

二〇〇六年二月二十八日 任員改選

顧問 .. 양섭 하식 필구 원택 재돈
會長 .. 正輔
副會長 .. 敏變 현섭 하섭 덕용 상권 오섭
總務 .. 相基
監事 .. 相烈 斗植
理事 .. 영성 순자 남식 상길 재춘 용택 교택
정진 재춘 용택 두섭 상협 상준 선규
인부 상오 상호 윤택 원용 재복 상학
동래 선례 춘섭 임섭 춘보 재명 광택
선택 주섭 의재 경식 동섭 원섭

人事

- 심현정 : 행정자치부 문서감축
- 심동섭 : 문화관광부 방송광고 과장
- 심방섭 : 대한주택공사 부장 기술계획처
- 심병조 : 해양수산부 치안정책관
- 沈炳燮 :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 沈樂洙 : 아산시 기획관리실
- 沈潤泰 : 인천공항공사 1급승진 전력계통팀
- 심혜원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 치료학과
- 沈載萬 : 예금보험공사 상시감시 3팀장
- 심정섭 : 서울여대 교양교육 부장
- 심원경 : 국민은행 가락동 지점장
- 심세진 : 신용암 지점개설 준비위원장
- 심재명 : 방위산업청 계약관리 본부회계팀장
- 심정욱 : 한화증권 르네상스 소장
- 심우섭 : 서울신문 수도권2 독자서비스국
- 沈甲輔 : 대법원 수원지법 부장판사
- 沈俊輔 : 대법원 전주지법 부장판사
- 沈相正 :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 심언중 : 경향신문 사옥재개발 추진본부 부장
- 沈愚定 : 산업자원부 산업피해조사 과장
- 심우엽 : 신한카드 부사장보
- 심호섭 : 적성중고 교장
- 심정희 : 심원중학교 교장
- 심점숙 : 산본고등학교 교감
- 심정순 : 안성여자고등학교 교감
- 심문자 : 용인 나곡초등학교 교장
- 심우인 : 동두천 양주초등학교 교감
- 심효섭 : 평택초등학교 교감
- 심낙훈 : 호서대 예체능 대학장
- 심용창 : 통일부 남북회담 사무국 회담1팀장
- 심상문 : 장학사 직업진료 교육과
- 심봉화 : 강서초등학교 교감
- 심정섭 : 서울문화사 전략기획팀 부장
- 심은석 :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정책추진단장
- 沈京愚 : 노동부 부이사관 장애인고용팀장
- 심규섭 :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PL지원팀
- 심원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팀장 분석대응팀
- 심규철 : 공주대학교 생물교육 과장
- 沈鳳圭 : (주) 제일 감정평가법인 감사(지사장)
- 沈星昊 : 남광토건 이사대우
- 심상정 :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기획총괄과장
- 沈利燮 : 한국폴리텍N 아산대학 학장
- 沈賢효 : 우리효자증권 삼산지점장
- 심기섭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심희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구매과장
- 심재무 : 경성대 법학연구소장
- 심홍식 : 국정홍보처 4급 분석2팀장
- 沈忠補 : 대신증권 상무 중부지역 본부장
- 심우엽 : 신한카드 본부장(부사장) 경영관리
- 沈洪燮 : 우리효자증권 수리지점장
- 심정섭 : 한진중공업 전무
- 심상우 : 한진중공업 상무

理事會費

英輔	50,000원	2005년	서울	명륜동
載澈	50,000	2006	서울	제기동
堯澤	50,000	2006	서울	당산동
相學	50,000	2006	서울	쌍문동
宜杓	50,000	2006	서울	독산동
泰燮	50,000	2006	서울	신월동
相根	50,000	2006	전주	완산
珉燮	50,000	2006	전주	연지
承澤	50,000	2006	충남	예산
相弘	100,000	2005-6	김포시	
承澤	50,000	2006	禮山	산성리
相弘	100,000	2005-6	金浦	풍무동
仁植	50,000	2006	서울	오류동
大植	50,000	2006	仁川	구월동
觀燮	50,000	2006	光州	산막동
柱燮	50,000	2006	晉州	이반성
在圭	50,000	2006	晉州	이반성
正補	50,000	2006	原州	개운동
載求	50,000	2006	三陟	남양동
信求	50,000	2006	光州	
判求	50,000	2006	光州	
泰燮	50,000	2006	慶南	固城
심재은	50,000	2006	강원도	강릉



심황섭 대종회이사

목련

하얀 속살 부끄러워
 뽀얗게 분 바른
 4월에 시집은
 새덕

그 저열 어데 두고
 그 푸르름 맞으려나
 지난겨울 아쉬워서
 겨울 꽃 닦음이나

선보러 나갈 색시마냥
 4월에 햇살 부서져
 속세를 뒤로 한 소녀
 조용히 명상에 들은
 고개 숙인 목련이여!

祝

심종완 : 3·1절 기념 애국지사표창
 대통령표창

訃告

承元(承運) 2006년 1월27일 별세 84歲
 前 大宗會理事(晚窓公派)
 嗣子: 瑞來 政來 子燮(崔炳淑 崔仁圭)
 婿
 딸: 松子(李揆효)

訃告

泰燮(大宗會理事): 配位 豊陽趙氏께서
 3月2日 별세(90세)
 嗣子: 載潤(子燮 邊淑姬)
 載敦(子燮 林立希)
 딸 : 成子 求子 必順 福順

誤字訂正(宗報57號)

- 6面 : 青松沈氏 青仁會 會長(載安)을 在安으로 訂正
- 8面 : 任員會費 甲輔副會長 年會費 30,000원을 300,000원으로 訂正
- 8面 : 理事會費(相錄.貞燮)全北을 全南長城으로 訂正

성금감사합니다

- 宗報誠金 -

宗會	300,000원	奉翊公派(鐵原宗會)
상조	100,000	서울 대림동
英輔	100,000	서울 명륜동
호섭	50,000	제천시 교동
영식	30,000	대전
산홍삼	30,000	대구 송현동
효식	50,000	서울 잠실동
상각	50,000	서울 성래동
규섭	100,000	오산시 원동
우섭	30,000	전남 순천
명섭	30,000	전남 순천
재환	30,000	부천시 소사
경보	30,000	수원시
용진	30,000	경북 김천
相學	100,000	서울 쌍문동
宜杓	100,000	서울 독산동
재환	30,000	고양 일산
淸澤	20,000	춘천 교동
원식	30,000	곡성 겸면
仁植	30,000	서울 오류동
晉州	100,000	정수중중
信求	50,000	慶南 固城
심완구	200,000	前울산광역시

- 舍人公派宗會 獻誠金 -

公州淸獻公派宗會 1,000,000원

알림

요즈음 대종회 또는 종친회라고 하면서 『청송심씨대동보감(상·하권) 발행처: 송조연구원, 16만원』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책자를 보내오는바,
 -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은 책자는 반송하시고
 - 대종회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금을 송금하지 마시고
 - 일가분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종회에서는 2002년도에 발간한 대동세보(전 12권:22만원)와 2006년도 발간예정인 대동세보 수권속편(현조의 한시집, 종보축쇄판, 제향홀기, 종사수첩, 뽕지포함 10만원)을 예약 받는 것 이외에는 보급하는 책자나 비디오 테이프 등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 理監總副會顧
- 事事務長長問
- · · 金載茂相
- · · 允允植鴻
- · · 義東出
- · · 福福
- · · 義東出
- · · 景輔
- · · 載求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지금까지 삼척심씨와 함께 심씨친보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도에 청송심씨 삼척총회를 구성하여 2006년 2월 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으로 相鴻씨를 선출하였다.

青松沈氏 三陟市宗會 創立總會